

희곡 『거액의 돈』에 투영된 1986년 영국 금융빅뱅의 형상화: 비대칭적 이익배분의 개념을 중심으로

양 오 석*

차 례

1. 서론
2. 등장인물의 독백 속에 투영된 1980년대 영국
금융개혁의 추이
3. 『거액의 돈』의 작품소개 및 문제제기를 위한
접근법
4. 『거액의 돈』에 나타난 인간관, 사회관 그리고
국제정치 패러다임
5. 결론을 대신하여

1. 서론

작가는 당대의 사회 및 역사적 사실들을 사실 그대로 투영하기도 하지만 허구화를 통해 창작의 세계로 빠져들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문학작품이나 연극, 영화 그리고 드라마 등에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서술되는 사회문화적 배경들을 담은 대화내용과 장면들을 통해 당시의 정치 및 역사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작품으로는 고대시 『베오울프』(*Beowulf*), 중세 『켄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 근대 셰익스피어의 희곡들, 18세기 사무엘 리차드슨의 근대소설 『파멜라』(*Pamela*, 1740),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 한세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Travels, 1726)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9세기 찰스 디킨스의 사회소설들, 현대 토마스 하디의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 1891), 현대 산업화 사회의 병폐를 담은 데이빗 로렌스의 『무지개』(*The Rainbow*, 1915)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수작들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데이빗 헤어(David Hare)의 『박람회』(*The Great Exhibition*, 1972)와 『비밀스런 황홀』(*The Secret Rapture*, 1988), 트레버 그리피스스(Trevor Griffiths)의 『당』(*The Party*, 1973) 등의 작품은 두드러진 변화의 시기였던 1980년대 영국의 사회상을 그려준다. 1980년대는 마가렛 대처가 통치하던 시절로 전통적인 영국식 금융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인 금융빅뱅을 이행한 시기이기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빅뱅이란 새로운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새로운 외환거래규칙을 설정하고, 새로운 감독 및 규제 구조를 갖추는 등 일련의 ‘시장 구조조정’을 의미한다(M_{ASULIS} and N_G 365).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금융빅뱅으로부터 기대되었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금융빅뱅은 정치경제적인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부문별 편익의 비대칭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금융구조로 사회구조를 구성하는 사회세력간에 패권이동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캐릴 처칠(Caryl Churchill)이 쓰고 1987년 공연된 영국 드라마 『거액의 돈』(*Serious Money*)을 통해 1987년 영국 금융빅뱅이 개별 부문의 상이한 행위자들에게 미친 상이한 분배적 효과와 이에 수반되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1980년대 영국의 금융개혁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2절에서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거액의 돈』의 작품 구성과 주제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문제제기를 위한 접근법과 이를 적용하여 등장인물의 사회경제적 입장변화를 토대로 부문별 편익의 비대칭문제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리고 5

절에서는 『거액의 돈』에 나타난 인간관, 사회관 그리고 국제정치 패러다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검토는 마지막 절에 이르러 몇 가지 정치경제적 함의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미래의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2. 등장인물의 독백 속에 투영된 1980년대 영국 금융개혁의 추이¹⁾

극 중에서 필자의 관심을 끄는 등장인물은 조버(jobber)로 일하던 프로스비(Frosby)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버란 투자가와 직접거래하지 않고 주식거래의 도매업자로서 활동하였던 금융중개인을 말한다. 자버는 브로커와 함께 거래를 형성하는 시장조성자(marketmaker)였다. 그러나 이 용어는 1980년대 금융개혁 이래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프로스비의 독백 가운데에는 1980년대 영국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대목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프로스비의 독백은 미국식 금융시장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독자들에게는 그저 단순한 언어의 나열로 들리기가 쉽다. 하지만 프로스비의 독백 속에는 전통적인 영국식 금융시장제도가 1980년대 금융개혁을 통해 어떻게 근대화되었는지를 잘 나타내준다. 각각의 대목이 묘사하고 있는 금융개혁의 실체를 항목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동화 전산거래시스템의 도입

빅뱅이후 증권거래소의 거래장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스크린을 통해 거래한다. 그러나 본인이 현장

1) 이 부분은 이미 필자에 의해 발표된 바 있는 글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본 글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아래 참조. 양오석, “1980-90년대 금융자유화에 대한 영국의 대응: 국제정치경제내 구조적 힘을 위한 서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에 없으니 무슨 말인지 통 알 수가 없다.

Since Big Bang the floor is bare, they deal in offices on screens. But if the chap's not really there, you can't be certain what he means.

1980년대 초 런던 증권거래소에 의해 징세된 주식 및 채권거래에 대한 고정 대리수수료에 대해 공정거래청(the Office of Fair Trading, OFT)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금융개혁에 대한 압력이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제증권시장이 제공하는 기회가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각지에서 성행하는 관례와 런던시장의 관례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점차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브로커와(주식)중개인²⁾의 단일 지위를 '이중 지위'(dual capacity)³⁾로 대체하는 문제를 종결짓고 전산화된 거래로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1983년 통상부(the Board of Trade)와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런던증권거래소가 고정 대리수수료를 없애는 일을 포함하여 일괄적인 개혁에 동의하였다. 금융거래체제의 근대화작업으로 인해 증권거래소 자동화 가격고시(Stock Exchange Automated Quotations, SEAQ)라는 전산화된 거래시스템이 증권거래에 도입되었고 증권거래와 유로본드 딜러가 병합되어 '영국 및 아일랜드공화국 국제증권거래소(the International Stock Exchange of the UK and the Republic of Ireland)'로 명명되었다.

2) 주식중개인 자버의 몰락

2) 이를 흔히 조버(jobber)라고 불렀다. 이들은 투자가와 직접거래하지 않고 주식거래의 도매업자로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3) 시장 조성자(marketmaker)가 주식을 일반 또는 다른 증권거래소 구성원에게 브로커없이 사거나 팔 수 있는 상황. 이때 시장 조성자는(주식)중개인과 브로커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나보고 일찍 퇴사하라고 그러더군. 회사가 잘하는 것은 아니야. 난 사람들로 북적대는 것이 정말 좋아. 집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정말 지옥이야.

I've been asked to retire early. The firm's not doing awfully well. I quite enjoy the hurly burly. Sitting alone at home is hell.

1986년 10월 소위 '빅뱅(Big Bang)'을 통해 세기적인 영국의 금융 거래가 하루아침에⁴⁾ 대규모 개혁을 맞이하였다. 개혁의 내용은 우선 런던 시장 조성자⁵⁾와 브로커들이 맡았던 업무가 영국 및 해외 은행들, 그리고 대규모 해외 증권 거래소⁶⁾에 의해 대신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예전에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LSE)는 기능적으로 브로커(대중으로부터 증권구매주문을 접수)와 자버(투자자와 직접 거래를 하지는 못하고 주식을 위한 도매업자 역할을 담당)간에 분할되어 있는 소규모 회원 기업들로 이루어진 카르텔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개혁은 브로커와 딜러의 활동영역을 바꾸어 놓았고 거래가 실행되는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었으며 가격고시와 거래를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확산시켰다. 또한 증권거래소를 재조직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휘발성을 줄여 주었고 증권 수익의 자산 가치를 상승시켰다(양오석 "1980-90년대 금융자유화" 365). 이에 이들 변화는 런던 증권거래소로서는 근본적인 혁명과 같은 것이었다.

4) 사실 정확히 2 주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5) 특화된 증권을 한꺼번에 사고 팔 준비가 된 브로커-딜러. 이로써 이들로 인해 시장이 조성된다. 빅뱅 전에 이 기능은(주식)중개인(jobbers)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 중개인들은 일반과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빅뱅 이후 모든 증권거래소 구성원들이 브로커-딜러로서 일반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6) 미국식 표기는 증권 거래소(Securities house)이고 영국에서는 이를 발행소(Issuing house)라 칭한다. 이는 증권의 신규발행을 조직하는 상업 은행, 주식브로커, 그리고 그 외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3) 시티 카르텔의 종말

한편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인 은행가 잭(Zac)의 대사 가운데서도 1980년대 영국 금융개혁의 실체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영제국은 카르텔이었다. 잉글랜드는 자신이 값싸게 사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생산해낸 제품들을 팔아 수익을 남겼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the City of London(런던금융가)은 마치 만화영화에 나오는 고양이처럼 절벽 아래로 쿵하고 떨어지는 것처럼(그래도 멀쩡히 살아남는 것처럼)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당신의 빅뱅이다. 시티 카르텔의 종말. 그래 좋아. 잉글랜드는 금리를 갖고 세상을 마음껏 휘돌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난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다.

The British empire was a cartel. England could buy whatever it wanted cheap and make a profit on what it made to sell. The empire's gone but the City of London keeps on running like a cartoon cat off a cliff - bang. That's your Big Bang. End of the City cartel. Swell. England's been fucking the world with interest but now it's a different scene. I don't mind bending over and greasing my ass but I sure ain't using my own vaseline.

옛 대영제국은 라틴아메리카, 오스만 제국, 중동 그리고 극동에까지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대영제국의 영광은 해군력 덕분이기도 했지만 대영제국이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금융자본의 덕이 컸다(Cain and Hopkins 1993). 세계대전 이후의 영국은 어땠는가? 전후 영국의 정책은 해외 구식민지로 이루어진 영연방에 달려 있었고 반대로 영연방은 기축통화로서의 파운드의 역할에 종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영국은 국내 경제지표보다도 국제수지와 파운드화에 대한 환율문제가 더 중요시될 수 밖에 없었다

(Strange, *Sterling* 139-157). 이러한 상황 아래 영국 정부의 정책노선은 런던 금융중심가인 시티(the City of London)의 이해관계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시티의 덕분으로 런던은 지금도 현대 금융도시들 가운데 3대 도시로 그 위상을 지키고 있다.⁷⁾

전통적으로 영국의 금융시스템은 자발적인 규제와 비공식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Strange, *mad money* 153). 독일시스템에 비해 법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고 정부와 '상류 자본가(gentlemanly capitalists)'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금융가 클럽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거래가 진행되곤 했다. 또한 개별 클럽들 간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했고 이들 장벽은 외부로부터의 경쟁을 제한하였다.⁸⁾ 이러한 클럽은 엄격히 말하자면 하나의 카르텔이었다.

이 카르텔은 클리어링뱅크, 할인상사(discount house), 해외은행, 머천트 은행, 저축은행, 주택저축조합(Building Society), 증권거래인 또는 투기꾼, 로이즈의 보험업자 협회, 브로커나 '네임즈(names),' 즉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앞에 영국 정부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마키아벨리의 국가가 아닌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정치적 행동을 담당하는 주요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는 제도로서의 국가일 뿐이었다. 세계경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가장 약한 것은 영국 정부이다. 실제로 영국 정부가 시티(런던금융가)를 지배한다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시티가 영국 정부를 지배해 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152).

그러나 1980년대 금융빅뱅 이후 시티를 규제하는 방법이 크게 달라졌다. 오늘날 시티의 금융가에는 드레드니들 가(Threadneedle Street)의 노 귀부인으로 불리우는 잉글랜드 은행(영란은행)의 감시

7) 아래 참조. W. Hutton, *The State We're in*(London: Jonathan Cape, 1995); S. Sassen,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NJ: Princeton UP, 1991).

8) 이러한 장벽은 기술적 용어로 영국에서는 'Chinese Wall', 미국에서는 'Fire Wall'로 불리운다.

하에 유지되어 온 자기규제라는 비공식제도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153).

4) 점진적 개혁이 아닌 빅뱅식 전환

1986년 영국에서의 ‘빅뱅’은 주로 국내증권시장에서의 고정 수수료를 철회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1983년 8월 16일부터 런던증권거래소 이사회는 최저 수수료를 철회할 수단과 방법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다. 10월까지 우선 해외 증권(이는 가장 경쟁적 압력이 컸던 시장영역이었고 이미 동의를 이루어진 영역이기도 했다)에 대한 고정 수수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국내증권에서는 고정 수수료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1984년 1월 증권거래소 이사회는 ‘빅뱅’ 접근법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이 방법이 고정 수수료를 철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 생각에 대한 합리성은 만약 고정 수수료가 한 영역에서만 제거된다면 기관투자자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압력행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최저 수수료가 계획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이었다(Michie 553).

이러한 개혁의 효과는 우선 거래비용이 줄어든 곳으로 새로운 자본을 유입시켰고 또한 국제 증권거래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신규 발행과 자본화(capitalisation) 모두에 있어서 1990년대 초 전체 거래의 3분의 2를 영국 정부채권이 차지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증권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는 그 절반이 외국 회사의 지분에 관련되어 있었다.⁹⁾

3. 『거액의 돈』의 작품소개 및 문제제기를 위한 접근법

9)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런던시장의 거의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은행에 자리를 내어 주게 되었다.

1) 캐럴 처칠의 작품세계

영국 제2의 르네상스로 평가되는 1970년대 중후반 처칠은 에드워드 본드, 아놀드 웨스커, 호워드 브렌튼, 데이빗 헤어 등 경쟁적인 젊은 극작가들과 함께 버나드 쇼, 오스카 와일드, 존 오스본 이후의 공백기를 메우는데 기여하였다. 이들은 사회적 비판의식이 강한 개성있는 젊은 작가들로서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서사극 이론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은 자들이다. 캐럴 처칠의 작품세계도 그들과 공유되는 부분이 많다.

그녀의 지속적인 관심사는 사회의 남성중심성, 현대 경제적 상황과 인간의 본성 등이다. 『소유자』(Owners, 1972), 『황홀경』(Cloud Nine, 1979)¹⁰⁾ 등의 작품에서 처칠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규율에 종속되고 상품화되어 문화적 희생물이 되고 있음을 고발한다(여홍상 292). 한편 현대 경제적 상황과 인간의 본성 역시 처칠의 흥미로운 테마 중 하나이다. 특히 그녀는 『거액의 돈』을 통해 현대의 경제적 상황과 이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을 지적한다. 처칠이 경제적 상황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72년 자신의 첫 작품인 『소유자』(Owners)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작품에서 처칠은 남녀행동의 인습적 재현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의 전복을 논한다(292). 그 후 처칠은 대부분의 작품에서 경제적 문제와 페미니즘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2) 등장인물의 특성

『거액의 돈』¹¹⁾은 1987년 3월 21일 런던 왕정극장(the Royal

10) 이 작품은 영국 제국의 성적 이중성을 잘 보여주며, 성적 인종적 역할을 전환시켜 식민주의와 성적 억압간의 도발적인 평행관계를 들추고 있다. 아래 참조. 여홍상, 『근대영문학의 흐름』(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11) 이는 일반적으로 많은 돈을 뜻하는 말이다. 국내 학자 정광숙 교수는 이를 『거액의 돈』이라고 번역한다. 아래 참조. 정광숙, “Caryl

Court Theatre)에서 처음으로 공연된 영국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1980년대 후반 영국 대처정부의 금융빅뱅 이후 금융계에 종사하는 영국인들의 사회경제적 일상사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이 극은 주식시장의 움직임, 국제적 기관투자자들의 활동, 기업인수합병, 그리고 구조조정 등 전문적인 금융경제적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204). 아래 <표 1>은 이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직업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거액의 돈』의 등장인물들의 직업

등장인물	직업	등장인물	직업
Scilla Todd	LIFFE 딜러	Jacinta Condor	페루 여사업가
Jake Todd	회사채 딜러	Nigel Abjibala	가나 수입업자
Grimes	gilts ¹²⁾ 딜러	Billy Corman	기업 사냥꾼
Zackerman	은행가	M ^r Etherington	주식브로커
Merrison	은행가	Duckett	Albion 회장
Durkfeld	주식중개인	Ms Biddulph	백기사(a white knight)
Greville Todd	주식브로커	Grevett	상공부(DTI) 감찰
Frosby	자버(jobber)	Soat	Missouri Gumballs 회장
M a r y l o u Baines	미국 차익거래자	Gleason	내각 장관

등장인물에서 알 수 있듯이 『거액의 돈』은 딜러, 은행가, 주식브로커, 미국 차익거래자 등 금융업에 종사하는 시민들과 기업사냥꾼, 상공부 공무원 그리고 장관 등 국가와 시장을 대표하는 등장인물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시대적으로 1986년 영국이 금융시장을 개혁한 이후 이들 금융부문에서 개별 행위자들이 얻거나 잃게 된 편익의 비대칭관계를 잘 묘사해 준다. 특히 은행가인 메리슨(Merrison)과 주식중개인인 덕펠드(Durkfeld) 그리고 자버인 프로스비의 대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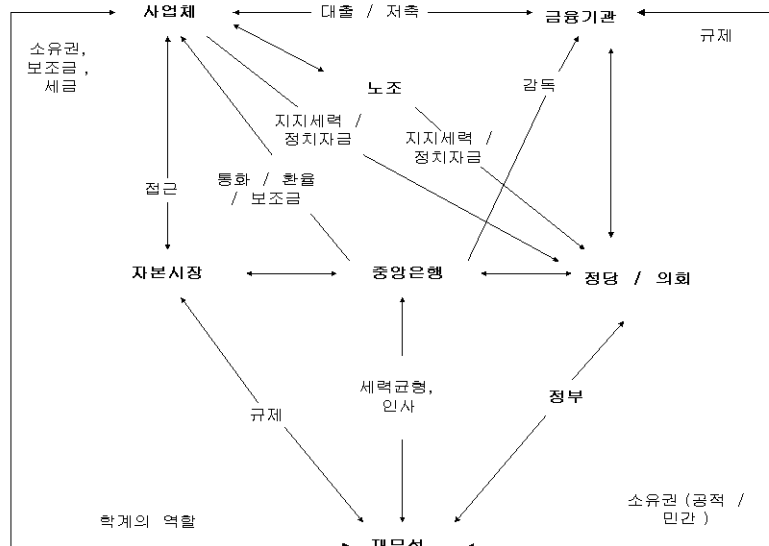
Churchill의 *Serious Money*: 자본주의와 인간의 탐욕,” 『현대영미드라마』 10권, 단일호(1999), 203-225.

12) 런던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고정금리 영국정부증권.

적 입장변화가 주목될 만하다. 실라(Scilla Todd)는 런던 국제 금융 선물거래소(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Exchange, LIFFE)의 달러 역할을 맡고 있다.¹³⁾

3) 문제제기를 위한 접근법

〈그림 1〉 금융정책 커뮤니티(영국사례)



자료: 이 그림은 필자가 Jonathan Story and Ingo Walter,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integration in Europe: The battle of the systems* (Cambridge: The MIT Press, 1997), 137의 제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13) 이는 1980년대 지속된 일련의 개혁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선물, 옵션, 그 외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설립이 추진되었다. 아래 참조. Henry Laurence, *Money Rules: the new politics of finance in Britain and Japan* (Ithaca and London: Cornell UP, 2001).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의 직업에 따라 1986년 금융빅뱅이 초래한 부문별 편익의 비대칭문제를 ‘누가-무엇을-갖고 누가-무엇을 잃는가(who-gets-what)’라는 전통적인 국제정치경제학의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문제제기를 위한 접근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분석틀은 정책커뮤니티모델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커뮤니티란 “정부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기 위한 영역”(Peterson 391)을 말한다. 이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행위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일반적으로 이들의 이해관계는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정책형성에 반영된다. 특히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체, 금융기관, 노조, 자본시장, 중앙은행, 정당과 의회, 정부 그리고 재무성 등이 금융정책 커뮤니티를 구성한다(<그림 1> 참조).¹⁴⁾

4. 『거액의 돈』에 나타난 인간관, 사회관 그리고 국제정치 패러다임

1)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상이한 관점의 본질: 인간관의 대립적 유형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기본적 관점의 차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생각은 홉스(Thomas Hobbes)의 사상과 로크(John Locke)의 사상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으로 보고, 로크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것으로 인식한다. 홉스는 이성이 지배하는 시민적 상태 이전의 단계인 ‘자연상태’가 인간이 처해있는 환경이며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전쟁상태’가 존재한다고 본다.¹⁵⁾ 이런 환경에서는 모든 이가 타인에 의해 위협에 처하게 되며

14) 여기서는 정당과 의회에 관한 고찰을 생략한다. 이에 대한 고찰은 또 다른 소논문을 요구한다.

15) 아래 참조. T. Hobbes, *Leviathan* (Oxford: Oxford UP, 1946).

아무도 자신의 안전과 생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삶은 지속적으로 위협에 처해진다. 홉스는 이런 자연상태로부터 '개화된 인간상태'로 탈출하는 경로는 주권국가를 창조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로크는 법 정치 사상에서는 계약설을 취하지만, 홉스의 전제주의(專制主義)를 자연상태보다도 더 나쁘다고 생각하여 주권재민(主權在民)과 국민의 반항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대표제에 의한 민주주의, 3권분립, 이성적인 법에 따른 통치와 개인의 자유, 인권과의 양립 등을 강조하며 종교적 관용을 역설했다. 그의 정치사상은 명예혁명을 대변하고 프랑스혁명이나 아메리카의 독립 등과 같은 일련의 자유주의적 사건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서유럽 민주주의의 근본 사상이 되었다.

로크와 달리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인간들이 모여사는 사회는 악한 존재인 인간들을 다스릴 선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가는 그러한 제도의 중심축이었다. 따라서 주권은 인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국가주권' 사상으로 귀결된다. 이와 달리 로크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인간사회는 아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선한 존재인 인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은 마땅히 국가가 아니라 인민들(people)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민주권' 사상이다.

2) 『거액의 돈』에 나타난 인간관과 사회관

인간 탐욕의 역사적 지속성

『거액의 돈』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관은 한 마디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식 그리고 홉스식 현실주의적 인간관이다. 마키아벨리는 국가이성(raison d'Etat)사상을 통해 군주가 바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도 허락될 수 있다는 강력한 목소리를 주창하였다. 이에 모든 것이 국가의 생존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론에 따르면 도덕적 국면은 가볍게 여겨

진다(Meinecke 49). 그는 정치와 국제관계에 대한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으며 흔히 이러한 면이 현실주의와 공유되는 점으로 평가받는다(Evans and Newnham 311). 세상은 위험하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축적된 힘과 부가 필요하다. 빠르고 재주껏 행동해야 하고 기회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경쟁자나 적에 대해 거칠게 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외교정책의 이행은 상대방의 힘과 이익에 대한 지적인 계산에 기반해야 한다.

결국 마키아벨리의 인간관은 ‘인간탐욕의 역사적 지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처칠은 이러한 마키아벨리식 인간관을 『거액의 돈』에 투영하고 있다. 처칠은 작품에서 1986년 빅뱅으로 탄생한 미국식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의 확산이 갑작스럽게 인간의 탐욕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지속성을 두고 성장해 온 것임을 시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녀는 첫 장면에서 현대적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병치시킴으로써 인간탐욕의 역사적 지속성을 묘사하고 있다(정광숙 208). 『거액의 돈』의 첫 장면은 16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토마스 셰드웰(Thomas Shadwell)이 쓴 『자원자들 혹은 주식중개인들』(*The Volunteers, or the Stock-Jobbers*)의 한 장면으로 대치되고 있다.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모두 정교한 17세기 복장을 입고 있고, 가당치 않은 품목의 주식을 파는 장면이 짧게 묘사된다. 관객들의 웃음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장면에서 핵크웰 부부와 주식거래인간의 대화가 이어질려고 할 때 자기 부인의 질문을 못들은 채하며 핵크웰은 극을 과거에서 현대로 던진다. 이로써 갑자기 장면은 세 개의 현대식 주식거래실로 바뀌어 버린다.

이렇게 병치되는 두 장면을 통해 관객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지속되어 왔음을 목격하게 된다. 또한 핵크웰부에게 영터리 주식을 팔려고 하는 주식거래인의 목소리와 유니콘 호텔의 주식을 팔려고 전화를 하는 그레빌의 목소리가 병치되어 극이 낮설어진다. 이러한 소외기법은 관객에게 객관적 판단을 위한 비평적 거리를 제공한다(208). 여기서 처칠이 관객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1986년 영국의 빅뱅은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빅뱅의 결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것임을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1) 인간사회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

홉스는 인간사회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연상태' 또는 '전쟁상태'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적인 사회적 에토스(ethos)이다. 『거액의 돈』에서 케릴 처칠은 정글이라는 인간사회를 움직이는 생존을 위한 약육강식의 이미지를 사냥장면으로 투영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체제에 빠르게 적응하여 살아남은 구세대 인물이자 주식중개인인 그레빌과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주식중개인인 실라(그레빌의 딸)는 미국에서 온 은행가 잭을 초대하여 사냥에 데리고 간다. 이들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사냥장면은 극 전체를 통해 처칠이 묘사하고자 하는 돈을 위해 경쟁적으로 경합하는 인물들의 행태를 첨예하게 드러내는 서곡이라 할 수 있다(정광숙 210).

이러한 서곡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잭과 같은 인물이다. 그리고 지배적인 정글의 법칙은 특권층으로서 금융인들이 누린 혜택을 무너뜨리고 능력위주의 새로운 직업관을 영입하였다(210). 흥미로운 것은 잭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패권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즉 잭의 승리는 미국의 승리이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금융 경제체제의 재편을 상징한다. 또한 돈과 권력을 향해 다른 희생자들을 신경 쓰지 않는 실라 역시 승리자이다. 실라는 희랍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열두 개의 팔을 갖고 있는 괴물이다. 금전에 집착하는 무모한 여인 실라는 거액의 돈에 온 정열을 쏟으며 자신의 관심과 노력을 게임(Game)으로 간주한다.

한편 처칠이 지적하는 1980년대 중후반의 영국 사회는 고도화된 산업기술과 대량생산된 상품으로 인한 상업주의와 과잉소비로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속성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여 물질만능주의로 몰아갔다. 특히 런던 금융시장의 젊은 주식중개인들의 성향은 이들 구조적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잭의 독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금융세계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거래자들이 급속도로 부유해지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은 이것을 알지도 못한다. 그들은 포르쉐를 타거나 포르쉐와 메르세데스 벤츠 모두를 탄다.

The financial world won't be the same gain / Because the traders are coming down the fast lane. They don't even know it themselves, they're into fucking or getting a Porsche, getting a Porsche and a Mercedes Benz.

이러한 극명한 물질주의와 실리추구 그리고 필연적인 상품화의 가속화와 같은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는 잭과 자신타(Jacinta)간의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잭과 자신타는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연인사이이다. 그러나 이들은 돈에 대한 탐욕과 이기심을 쫓느라 데이트할 시간조차 내지 못한다. 게다가 어렵게 마련한 데이트 자리에서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주로 인간의 욕망을 노래하고 있다.

<자신타>잭, 당신은 너무 멋져요. 난 당신이 유로채권만큼이나 좋아요.

<잭>난 우리가 데이트 할 시간을 못내리라 생각했요. 당신은 금리가 바뀌는 것보다 더 전율을 느끼게 하오.

<Jacinta> Zac, you're so charming, I'm almost as fond of you as I am of a eurobond.

<Zac> I thought we'd never manage to make a date. You're more of a thrill than a changing interest rate.

3)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구조내 패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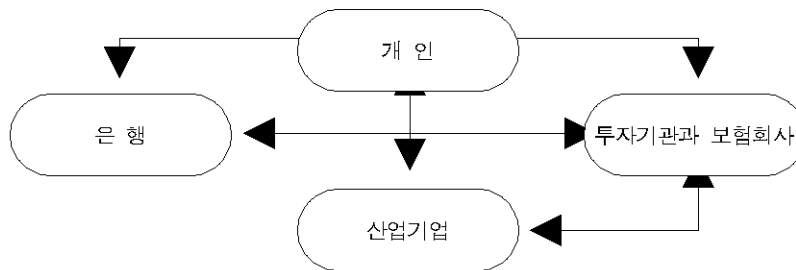
은행가인 메리슨은 주식중개인인 덕펠드와 더불어 클라인 메릭(Klein Merrick)의 동료중역이었다. 1986년 빅뱅 이후 이들은 경쟁자 관계가 되었으며 결국 메리슨은 덕펠드에게 패배하고 자리를 내

어주게 된다. 덕펠드는 메리슨을 재치고 최고경영자의 자리에 오른다. 이러한 상황설정은 최소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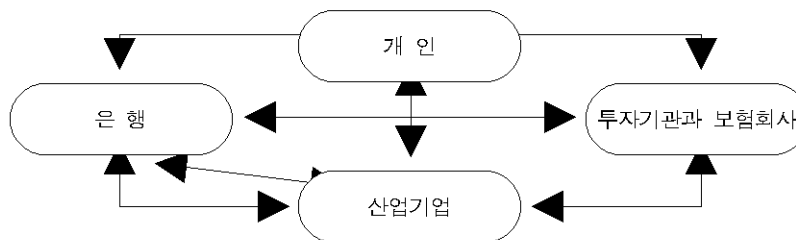
첫째, 1986년 빅뱅 이후 영국의 금융체제가 은행중심적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금융시장중심적 체제로 집중되었음을 상징한다. 기업통제에 대한 은행기반체제에서는 비금융기관의 주식을 은행이 주로 보유하거나 은행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에 의해 보유된다. 즉 은행이 고객에 대해 상업 은행가와 투자 은행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은행들은 기업경영에 대한 주요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사회에 참가하거나 내부 정보(non-public(inside) information)를 활용하여 경영에 관여하게 된다. 즉 은행가들은 기업 감독이사회내 자신의 위상, 중앙은행과의 밀접한 관계, 채권시장의 경영, 연례 총회에서 위임된 주식에 대한 행정, 고객에 대한 다중적 서비스 공급 등을 통해 중심적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2〉 대안적 기업통제/금융구조

(a) 증권시장중심체제



(b) 은행중심체제



출처: Story and Walter(1997), p. 139.

반면 주식시장중심체제에서는 은행의 기능이 상업은행업과 금융시장제도의 입법적 활동으로 나뉘어 있다. 전자는 기업에게 단기 금융을 제공하지만 기업의 대외금융을 위한 주요 자원은 자본시장이다.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분은 대중에 의해 보유되는데 직접적으로 보유되거나 기관(보험회사나 뮤추얼 펀드 그리고 연기금 등과 같은)을 통해 보유된다. 주식시장시스템은 높은 투명성을 자랑하고 감사에 의해 제공된 공공 정보에 크게 의존하며 주식 투자자와 연구 분석가들에 의한 체계적 감시가 뒤따른다. 투자 은행은 전략적 자문과 금융적 자문을 활발히 제공하며 때로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기업에 주식 포지션(equity position)¹⁶⁾을 취하기도 한다(양오석 『1980년대 영국정부』 91).

둘째, 새로운 금융체제의 탄생은 사회 내 지배적 그룹들이 인정하는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피지배계급(계층)들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 따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 태생 그람시(Antonio Gramsci)는 마르크스의 권력개념을 넘어서서 ‘질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패권(hegemony)’의 개념을 통해 풀고자 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채택하는 권력개념은 ‘타 계급에 대한 한 계급의 억압의 기제’라는 엥겔스의 생각에 기반하여 국가의 강제적 행위와 능력에 관심을 둔다. 이와 달리 그람시의 권력개념은 기본적으로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적 권력개념을 채택하지만 ‘강제’외에도 ‘동의’의 혼합체로 본다.

그렇다면 동의는 어떻게 산출되는가? 그람시에 따르면 동의는 사회 지배층의 패권에 의해 창출된다. 여기서 그람시가 말하는 패권의 개념은 기존

16) 일반적으로 매수계약을 하면 바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제시한 가격에 구매자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얼마동안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포지션’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포지션은 롱포지션(Long Position)과 숏포지션(Short Position) 등 둘로 양분된다. 전자는 투자자가 현금 소득이나 미래에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팔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이와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국제관계에서 거론되어 온 패권의 개념과는 다르다. 전통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말하는 패권은 전간기전 영국과 전간기 이후 미국과 같은 국제관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내지 특정지역을 지배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그람시의 패권은 사회 계층(계급)에서 비롯된다. 사회내 지배적 그룹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켜 피지배계급(계층)들이 이를 수용하게끔 강요한다.

영국의 금융구조개편에 있어서 패권을 쥔 사회세력은 증권 및 주식시장의 행위자들이었다. 주식중개인인 덕펠드, 실라, 제이크(Jake), 그리고 뉴욕 차익거래자인 메리루(Marylou)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 가운데 주식중개인인 덕펠드는 클라인 메릭의 중역이었다. 덕펠드는 경쟁에서 승리하여 메리슨을 재치고 최고경영자의 자리에 오른다. 이로써 덕펠드는 현대 금융체제가 은행중심이 아닌 금융시장중심으로 변환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한편 젊은 주식중개인인 실라는 제이크의 죽음에 의문을 갖고 추적하는 중 뉴욕의 메리루에게 가서 그녀를 협박한다. 이때 실라는 메리루에게 자신이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인 건달이라고 소개한다. 메리루는 실라의 대담성에 탐복하여 자신의 비서를 즉각 해고한 뒤 실라를 자신의 비서로 고용한다. 극중 실라의 마지막 모습은 여자로서 갖기 어려운 대범함에 따른 귀결로 ‘월가의 떠오르는 별(Wall Street's rising star)’로 비즈니스위크지(Business Week)에 실리게 된다.

난 탐욕스럽고 완전히 비도덕적입니다...그리고 난 건달만큼이나 거칠어요.

I'm greedy and completely amoral...And I'm tough as a job.

또 다른 젊은 주식중개인인 제이크는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다. 그는 실라의 아버지인 주식브로커 그레빌과 손잡고 미국의 신규진입 은행과 연합하여 주식중개업을 성공적으로 꾸려 나간다. 이에 빅뱅으로 개편된 금융체제에 가장 빠르게 적응한 자로 묘사된다.¹⁷⁾

마지막으로 탁월한 뉴욕의 차익거래자인 메리루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알비온 주식 매입에 뛰어든 콜만의 작업에 참여하는 듯하다가 초과이익만을 내고 받을 때는 능수능란한 사업수완의 소유자이기도 하다(정광숙 213). 그녀의 극중 마지막 모습은 1996년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중심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구조의 패권세력으로 등장하는 이들 모두는 은행중심체제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폄하한다. 더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주주, 경영자, 고객 등)은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부를 최적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제한적인 권한만을 갖는 정부시스템하의 자유시장체제야말로 민주주의와 가장 잘 부합한다고 본다. 여기서 정부의 주요 임무는 개방된 자본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규제 및 법적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90).

17) 그러나 제이크는 내부자정보를 빼내어 팔다가 정부기관에 들리게 되고 결국 의혹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후 제이크는 유명이 되어 자신타에게 나타나기도 한다.

5. 결론을 대신하여

결국 자본이동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행위자들에게 상이한 충격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자본거래자유화를 비롯한 금융빅뱅은 개별 분야의 상이한 행위자들에게 상이한 분배효과를 부여하였다(Haggard and Maxfield 212).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집단은 자본이동자유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자로 나서는 반면 어떤 집단은 그에 대한 저항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1980년대 영국의 금융빅뱅 과정은 이들 사회적 집단으로부터의 저항을 극복해야만 하는 주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처칠의 『거액의 돈』은 빅뱅 이후 등장한 새로운 경제적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자 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 군상을 포착하고 있다. 처칠은 빅뱅 이후 등장한 금융시장 중심적 자본주의체제는 철저히 미국식 자본주의체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환경은 사람들이 생존을 모든 가치 가운데 최우선시 하는 현실주의적 자세에 기반 하게 만들었음을 고발한다. 현실주의적 인간은 합리적 선택에 따라 자신의 물질적 욕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채 이익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인간들이 서로 경쟁하는 사회적 구조와 세계경제체제는 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손실을 초래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의 싸움터로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전쟁터에서 안전(또는 안보)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해 온 국가는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퇴각해 버렸다. 이에 개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준 끈을 놓은 채 스스로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Strange, *The Retreat* ch. 13).

주식시장은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곳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6년 빅뱅 이후 런던 주식시장의 변화와 금융업에 종사하는 여러 행위자들의 일상사는 경제적 상황과 인간의 본성을 연합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케릴 처칠에게 가장 적합한 무대와 인간군상을 제공하였다(정광숙 209). 사회주의자인 케릴 처칠의 눈에 비춰진 1980년대 중후반 영국 사회의 모습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

회였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허점을 치질은 극의 결말부에 이르러 미국식 자본주의의 신봉자인 잭이 자신의 모습을 회의하고 자각하는 장면을 통해 꼬집어 준다(217-218).

내가 뭔가 정말 제대로 못한 게 있어.

Somewhere along the line I really blew it.

한편 이 글의 고찰만으로는 캐럴 치질의 작품 『거액의 돈』에서 나타나는 금융빅뱅의 형상화에 대해 완전한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없다. 이는 아래와 같이 이 글이 다루지 못한 여타 중요한 관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 글은 금융빅뱅으로 인해 1980년대 중후반 영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캐럴 치질의 주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 작품이 젠더 혹은 페미니즘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에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둘째, 이 글은 『거액의 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의 형상화를 통해 정부가 저항세력으로부터 정책변화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낸 과정과 변화에 대한 국내적 저항(이익, 제도 및 문화적 측면에서의)을 극복하는 경로를 살펴보지 못했다. 정부관련 등장인물의 역할을 통해 대처정권이 정책변화를 위한 담론과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정책담론과정의 차별성 내지 지속성을 해석하는 것도 흥미롭다.¹⁸⁾ 셋째, 이 글은 『거액의 돈』을 중심으로 1980년대 중후반 자본주의체제의 전환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달하고 있다. 이와 달리 같은 시기 영국의 또 다른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작품들 속에 투영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균형적으로 대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⁹⁾

18) 아래 참조.. 양오석, “1980년대 영국정부의 금융규제 정책변화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행사 경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내부적 동인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8권 1호(한국외국어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4).

19) 데이빗 헤어(David Hare, 1947 -)의 『박람회』(The Great

결국 영국 드라마 『거액의 돈』에 투영된 1986년 영국 금융빅뱅의 형상화에 대한 이해는 위에서 언급한 이 글이 다루지 못한 관점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에야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글이 이러한 이해의 한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연구를 자극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거액의 돈, 금융빅뱅, 비대칭적 이익배분, 케럴 처칠, 정책커뮤니티

Exhibition, 1972)와 『비밀스런 황홀』 (*The Secret Rapture*, 1988), 트레버 그리피스스(Trevor Griffiths, 1935 -)의 『당』 (*The Party*, 1973) 등은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들 희곡들은 대처주의에 대한 항거의 목소리와 더불어 노동당에 대한 환멸과 영국 좌파의 내분을 고발하였다(여홍상 290-291). 특히 데이빗 헤어의 『비밀스런 황홀』은 대처주의의 정치와 실용주의적 금융정책은 인간적 정서와 진실한 가치의 문제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여홍상 291).

인용 문헌

- 양오석, “1980-90년대 금융자유화에 대한 영국의 대응: 국제정치 경제내 구조적 힘을 위한 서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 양오석, “1980년대 영국정부의 금융규제 정책변화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행사 경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내부적 동인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8권 1호(한국외국어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4).
- 양오석, 『전지구화와 유럽정치경제』(서울: 두남, 2004).
- 여홍상, 『근대영문학의 흐름』(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 정광숙, “Caryl Churchill의 *Serious Money*: 자본주의와 인간의 탐욕,” 『현대영미드라마』 10권, 단일호(1999).
- Cain, P. J. and A. G. Hopkin. Vol. 1. *British Imperialism: Innovation and Expansion 1688-1914* and Vol. 2. *British Imperialism: Crisis and Deconstruction 1914-1990* (London: Longman, 1993)
- Caryl Churchill, *Serious Money*, The Royal Court Writers Series published by Methuen in association with the Royal Court Theatre(London: Methuen London Ltd, 1988).
- Evans, G. and J. Newnham. *The Dictionary of World Politics*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92).
- Haggard, Stephen and Sylvia Maxfield. "The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Internationaliz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in Robert O. Keohane and Helen V. Milner, eds., *Internation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P, 1996).
- Hobbes, T. *Leviathan* (Oxford: Oxford UP, 1946).
- Hutton, W. *The State We're in* (London: Jonathan Cape, 1995).
- Ingham, Geoffrey. *Capitalism Divided? The City and Industry*

in British Social Development (Basingstoke: Macmillan, 1984).

Laurence, Henry. *Money Rules: the new politics of finance in Britain and Japan* (Ithaca and London: Cornell UP, 2001).

MASULIS, Ronald and Victor K. NG. "Overnight and Daytime Stock-Return Dynamics on the London Stock Exchange: The Impacts of "Big Bang" and the 1987 Stock-Market Crash,"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 Statistics* 13.4 (1995).

Meinecke, F. *Machiavellism: The Doctrine of Raison d'Etat and Its Place in Modern History* (tr. D. Scott) (New Haven, Conn, 1957).

Michie, Ranald C. *The London Stock Exchnage: A History* (Oxford: Oxford UP, 1999).

Peterson, J. "Policy Networks and European Union Policy Making: A Reply to Kassim" *West European Politics*, 18.2 (1995).

Reich, Simon. "Roads to follow: regulating direct foreign invest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43.4 (1989).

Sassen, S.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NJ: Princeton UP, 1991).

Story, Jonathan and Ingo Walter.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integration in Europe: The battle of the systems* (Cambridge: The MIT Press, 1997).

Strange, Susan. *Sterling and British Policy: A Political Study of an International Currency in Decline* (Oxford: Oxford UP, 1971).

Strange, Susan. *mad money*(Manchester: Manchester UP, 1998).

Strange, Susan. *The Retreat of the State* (Cambridge:

Cambridge UP, 1998).

Abstract

Configuration of British Big Bang in 1986 reflected in the
British Drama *Serious Money*: A perspective of
asymmetrical distribution of interest

Oh Suk Yang

This paper mainly examines the evolutionary occasion of the financial Big Bang in 1986 and explores its outcomes in terms of an asymmetrical distribution of interest. To cover this issue, this paper utilizes Caryl Churchill's *Serious Money* as an angle through which the relation between human greed and capitalism is examined. In fact, social scientist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this mixture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erious Money deals with the relation between human greed and capitalism that Caryl Churchill observed and recognized as a significant problem after the British Big Bang in 1986. *Serious Money* covers the nature of capitalism and explores its influence on actors in the financial policy community in the 1980s.

The guiding research objective in this article is to discover how who-gets-what is an asymmetric reflection of demand from sectors or actors in the British financial policy community in the 1980s. The author's short-cut answer to this question is that the challenges to the financial policy were not pure outcomes of the demands of economic actors or market forces. Rather, this article contends that a policy shift was the hybrid outcome of a

combination of demands made by economic and political actors. All the characters in *Serious Money* are completely egotistical and materialistic. Big Bang reformed the London financial market and accelerated the capital in- and out-flows. However, the asymmetrical distribution of interest provided a distinct contrast to the positive impact of Big Bang on the cross-border capital flow: the actors in the financial community were divided into conflicting groups of the winners and the losers. *Serious Money* draws them as caricatures realistically and even depicts the epistemic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society and international politics.

key words : *Serious Money*, Financial Big Bang, Asymmetrical Distribution of Interest, Caryl Churchill, Policy Community